



매그넘 풍경전과 김훈의 《공차는 아이들》

말을 걸어오는 사진들, 말하는 사진과 김훈 식으로 대화하기

소설가 김훈은 관념과 현학의 물꼬를 어떤 이야기에 갖다 붙여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견고한 사유 위에 유연한 문체의 집을 짓는 작가다. 그 사유와 문체의 힘을 천연덕스럽게 드리블해 나온 책이 《자전거 여행》과 《공차는 아이들》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자전거 여행'은 사실 그에게 최적의 무대였다. 그는 기자 생활을 통해서도 팩트에 사유의 옷을 입히는 눈을 길렀고, 작가 생활을 통해서도 독자들이 목말라 하는 의식의 허공을 꿰뚫는 눈을 길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작가 김훈은 자전거를 타고 한반도를 주



유하면서 자전거 바퀴의 속도에 따라 다가오고 멀어지는 풍경과 내밀한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빨리 다가오거나 빨리 멀어져가는 풍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문화를 너무 사랑해 온 탓이다. 그 탓에 사람들은 자전거 바퀴의 회전 속도에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천천히 멀어져 갔던 풍경들에 대해 향수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김훈이 자전거 여행을 이야기하자 그만 훌쩍 반해 버리고 말았다.

자전거 안장에서 내려온 김훈은 '김훈의 풍경'이라는 부제 아래 《공차는 아이들》을 다시 들이밀었다. 대략 1년 전쯤의 일인데, 이때는 월드컵 4강의 흥분이 가라앉을까봐 사람들이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공차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했고, 듣고 싶어했으며, 공차는 모습을 보고 싶어



《공차는 아이들》

김훈 지음 | 매그넘 사진 | 생각의나무 | 100쪽 | 값 15,000원

했다. 그 심리적 공간 속으로 김훈은 아주 낮익은, '공차는 이야기'와 공차는 사진들을 센터링했다. 그는 심지어 '이 공차는 인간의 육체 속에는 산하가 숨어 있다. 공을 찰 때 그 산하는 이처럼 모습을 드러낸다'고 엄청난 '뺨'을 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뺨'일 수 없는 것이, 그의 '뺨' 옆에는 사진 한 장이 배치돼 있었다. 옷통을 벗어붙인 아이들이 해변에서 공을 차고 있고, 저 앞으로 산과 아파트단지과 바다가 희미하게 드러난 사진이었다. 그는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 인간의 육체와 산하가 동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김훈이 자신의 글과 한자리에 놓은 사진들은 모두 '매그넘'이었다. 《공차는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김훈도 그렇고 매그넘도 그렇고,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던 셈이다.

그 매그넘의 사진 132점이 지금 서울 한복판 인사동에 걸려 있다. 매그넘의 사진이라야 꼭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모든 사진은 인간과 카메라 사이의 소통을 통해 생산됐다는 점에서 스스로 말을 하는 다이얼로그 장치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진가의 급수가 매겨지는데, 매그넘의 사진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스티븐 매커리의 〈폐허 속의 가족〉은, 김훈을 흥내내자면 '한 점 모닥불 속에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이 숨어 있다. 그러나 불씨가 잦아든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이 다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이 사진을 내세워 스티븐 매커리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다. 사진가에게는 사진이 곧 확성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화법이다.

프랑스의 페트릭 자크만이 찍은 〈성채화된 도시〉 역시 말을 하는 훌륭한 사진이다. 슬럼화된 아파트가 역삼각형 모습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왼편에 철조망이 늘어서 있다. 철조망은 통행을 막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철조망은 빨래를 거는 데 있어 빨랫줄 이상으로 효용성이 높다. 집게로 물려 놓지 않아도 빨래가 날아가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철조망에 걸린 빨래는 웅색한 삶을 증언하는 데 탁상이다. 성채화된, 그러나 재개발을 해야 할 만큼 폐허화된 건물 앞의 흙마당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그들이 바로 남루한 빨래, 양말과 러닝셔츠와 티셔츠의 주인들이다. 이국의 풍경이지만 이 피사체는 우리에게 어쩐지 아주 낯익다. 그렇다. 황학동이다. 청계천 고가 위를 내달릴 때 상가 뒤편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던 그 '성채화된 도시'에도 철조망에 걸린 빨래가 있었고,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걸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지금 청계천 복원 공사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다.

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매그넘 풍경전'에 삶과 유리된 사진은 없다. 사물에 국한되기 십상인 '풍경'을 주제로 내세웠지만 매그넘의 정신 중에는 '새로운 것보다 사물을 새롭게 보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관광산업에 헌신하는 사진을 거부하는 중심에는 매그넘 창립자 중 한 사람인 로버트 카파가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아 죽은 것, 또 다른 창립자 데이비드 세이머가 수에즈 전선에서 이집트 군의 기총소사를 맞고 죽은 것에도 무관하지 않다. 매그넘의 파인더들은 애초에 덧없는 감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상을 읽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가 김훈이 《공차는 아이들》에서 어떻게 매그넘의 리얼리티와 교류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잔디 구장의 축구선수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아날로그적인 희열을 체험하는 일이다. **☞**

취재 입동헌기자 · 사진 제공 매그넘

매그넘 풍경전

전시기간 : 2003년 12월 13일 ~ 2004년 2월 28일

출품작 : 132점

전시장소 : 서울 인사동 선 갤러리(734-0458,5839)

관람료 : 어른 6천 원 / 중·고·대학생 5천 원 / 초등학생 4천 원



매그넘 MAGNUM

로버트 카파, 카르티에 브레송, 조지 로저, 데이비드 세이머 등 60여 명의 세계적 사진가로 이루어진 전문 사진가 그룹이다. 사진가의 권리, 보도사진가의 자유, 사진 저작권의 확보 등을 전면에 내세운 조합형태의 에이전시 기능을 하기 위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 파리에 국제본부, 런던과 동경에 지사를 두고 있다. 작고한 사람까지 포함, 회원이 6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자격 규정을 까탈스럽게 적용한다. 회원은 정회원 Members, 준회원 Associates, 후보회원 Nominees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보회원의 경우 2,3년 뒤 새로운 작업을 통해 검증받아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이번 풍경전에는 정회원들의 작품만 전시됐다. 로버트 카파, 카르티에 브레송, 조지 로저, 데이비드 세이머 등이 전쟁 직후의 무력감 속에서 설립의 골격을 잡아 오늘에 이른다. 양재사 출신인 로버트 카파의 리포터 정신과 카르티에 브레송의 예술정신이 '아름다운 충돌'을 이뤄 오늘의 매그넘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